주석의 추억

朝鮮日報

이현택 기자

필자가 공부했던 하워드 탐사보도센터

주석(註釋, footnote)하면 논문이나 학술 서적, 판결문 등에서 엄밀한 출처 표기와 보충 의견 등을 위해 쓰는 줄만 알았지 신문기자로서 취재하면서 주석을 달아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워딩이나 녹음파일을 모아둔 적은 있었다. 그것도 취재 그 자체보다는 취재원과 서로 기억이 다르거나 분쟁이 있을 때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극히 일부만 모아뒀다가 추후 파기한 것들이다.

중견 기자로서 미국 저널리즘스쿨에서 공부하며 접했던 탐사보도 프로젝트에서 배운 것 중 한 가지를 꼽자면 단연 주석이다. 경험이 많은 기자들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일선에 있는 평범한 기자로서는 꽤 신선한 기억이었다.

사실 미국 기자 모두가 주석을 정리하면서 취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접했던 일부 외신 취재팀에서는 주석이나 원문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었고, 우리 취재 환경에서도 꽤 검토해볼만한 거리라 생각이 들었다. 나와 같은 주석 초심자를 위해 내 경험을 공유해 보려 한다.

엑셀로 정리하는 문헌 연구

취재 참여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엑셀로 문헌연구를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점이었다. 학교-언론 협업 프로젝트라서 교육의 목적을 위해 더 철저히 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도움은 됐다. 문헌연구는 크게 정부 자료, 언론보도, 비영리기구 자료,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정리한다. 취재팀 15명 전원이 각자 맡은 부분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는 문헌연구 내용을 하나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했다.

문헌 연구 정리가 끝나면 1주일 가까이 토론을 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멘토 기자들이 발문을 제기하고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어떤 주제가 취재에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취재팀이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따져봤다.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한국적 사고로는 언제 결과물이 나올지를 따져보는 것이 1순위일텐데 다소 나이브하게 출고 계획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헌 연구는 인터뷰이 확보에 꽤 도움이 되기도 한다. 타사에 나온 기사들을 집대성하는 과정에서는 주요 취재원이나 전문가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논문을 읽으면서는 해당 논문 연구팀 또는 저자에 대해 알고 또 연락을 해 사전 취재 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일부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가 보도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미국 주요 네트워크 언론사와 협업을 할 때는 현장 취재를 나갈 때 해당 네트워크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했다. 방송사의 주력 지국이 시애틀,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면, 해당 지국 기자들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기본 취재가 저널리즘스쿨과 협업으로 끝난 뒤 지국을 중심으로 현장 영상 촬영 및 제작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하는 식이다. 신문사 역시 주요 자회사 신문의 발행 권역을 검토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에 원문이 튀어나오도록 정리한다

탐사보도 프로젝트 내내 취재팀이 신주단지처럼 여겼던 것은 '취재내용 총정리 구글 스프레드시트' 였다. 구글 드라이브에 띄워놓은 엑셀파일에 취재 내용 엑기스를 총정리해 놓는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그리 새롭지 않다. 하지만 각 셀별로 취재한 내용에 일일이 URL 등 주석을 채워넣는 점은 내게는 놀라웠다. 저걸 어느 세월에 다 주석을 다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면 채워졌다. 팀플레이에 불가능은 없었다.

이 스프레드시트에는 항목 하나 하나에 주석이 들어간다. 이 표를 보는 다른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소속 공무원 30% 이상이 주말근로를 하는지 여부" 라는 가공의 사례를 가정해 보자. 이럴

때 뉴욕주는 O(맞음)로 가정하자. 그러면 그 옆 칸에 원문 출처를 넣는다. 가령 "뉴욕 사회복지 공무원의 30%가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판결문 속 문장을 따옴표로 인용하고, 그 다음에는 원문의 제목과 출처, 날짜 등을 "마크 힝클 대 뉴욕시청 (2025. 5.5.)" 등으로 적는다. 그리고는 원문 링크 URL을 하이퍼링크로 넣는다. 그러면 이 주석을 보는 다른 기자는 해당 문장을 한 번 읽어보고, 제목과 원 소스 출처를 확인한 뒤, 제목을 클릭하고 실제 원문 속 해당 문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주석 하나만 봐도 이 스프레드시트에 소개된 원문을 당시 취재기자와 완전히 동일한 환경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플랫폼으로는 도큐먼트클라우드가 있다. 도큐먼트클라우드는 미국 공익법인 산하 서비스로 언론사들이 취재 1차 자료를 업로드하고 주석을 달며,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국내에서도 일부 뉴스룸에서 자료 업로드와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다. 나는 이 서비스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주석이라고 생각한다. 도큐먼트클라우드에 PDF로 된 원소스 자료를 올리면, 서비스는 이를 검색 가능하게 프로세싱해준다. 그리고는 특정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부분에 대한 취재기자의 의견을 적어놓으며, 이를 URL로 추출할 수 있게 한다. 다른 기자나 팩트체커는 URL만 클릭하면 앞서 제시한 "뉴욕 경찰관의 30%가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는 예시가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PDF에서는 해당 페이지를 찾아보기 위해 마우스를 한참 굴려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취재용 도큐먼트클라우드에는 취재팀 내에서만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각종 취재자료를 올려놓는다. 세금이 쓰이는 곳을 취재하는 내용이라면, 취재 대상인 미국 각 주의 정부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들을 공유한다. 취재내용 유출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자료 보안에 철저히 조심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각 기자들이 주석을 달아 취재한 내용에 대해 다른 기자들이 추가로 주석을 달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작성한 발제문에 댓글 등으로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내용을 정교화하기도 한다.

나의 눈길을 끄는 대목 중에는 '정보공개 거절 통지서'를 모아놓은 항목이 있었다. 도큐먼트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 등 한 켠에 거절 통지서만 따로 모아놓은 항목이 있었다. 이는 최종 취재 과정에서 몇 퍼센트의 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했는지를 파악할 때 사용했다.

주석 달기는 자료수집에서 그치지 않는다. 발제를 하더라도 발제문보다 주석이 더 길었다. 한 줄 한 줄 다 주석을 다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발제문과 취

재용 구글 스프레드시트, 도큐먼트클라우드 등은 독립된 팩트체커와 협업 뉴스룸 기자 및 간부 모두가 교차검증을 했다. 또 발제문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두고 모든 기자가 협업해 다듬어 갔다.

발제문에 주석을 다는 것은, 내가 접했던 두 곳의 국내 뉴스룸에서는 보지 못했던 방식이다. 두 곳 모두 발제의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부서와 부장의 스타일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발제 보고서도 기사를 쓸 수 있게, 자세하면서도 콤팩트하게 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어떤 부서는 전통적으로 조사 정도만 빼고는 전체 기사 내용이 거의 발제에 담겨있고, 다른 부서들은 이보다는 콤팩트하게 발제문을 작성한다고 할까. 물론 굳이 주석을 달지 않더라도 발제문 한 줄 한 줄, 기사 문장 하나 하나를 현업 기자와 팀장, 차장, 부장 등이 재검증하는 것은 우리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꽤나 도움이 됐던 AI

취재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다. 특히나 영어에 장벽이 있는 40대 외국인 기자 입장에서는 몇십 장, 몇백 장에 이르는 정보공개 답변 내용이나 판결문 등을 보고 한 번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원문을 한 줄 한 줄 읽되, 최대한 문명의 이기를 병행해 사용했다.

우선 세 가지 방법으로 AI를 사용했다. 하나는 번역이다. 번역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챗GPT 같은 AI에 PDF파일을 첨부하고 번역을 요청하면 한글 텍스트로 받아볼 수 있었다. 또 다른 것은 이 내용을 읽고 기자로서 궁금한 점을 말해달라는 점이었다. 의외로 기성 기자인 나보다 더 '야마'를 잘 잡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했던 적도 있었다.

끝으로 내가 쓴 글에 AP스타일에서 틀린 점이 있는지 교정을 봐 달라고 할 때가 있다. AP스타일은 미국의 유명 통신사인 AP통신사가 매년 발간하는 표기법으로, 미국 전역에서 교범으로 인식될 정도로 권위가 있다. 현지 기자들에게는 간단한 맞춤법 표기 가이드 정도겠지만, 미국에서 기자생활을 하지 않았고 관련 수업을 듣지도 않았던 외국인 기자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다. 예컨대, AP스타일북에 6개월은 '6 months'가 아니라 'six months'로 써야 하는 식이다. 이 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가 내 글이 AP스타일상 틀린 점을 교정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환각 효과 등 가능성이 있어 주로 AP스타일 종이책을 곁에 두고 2차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겠다.

물론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들이 기사 출고 때까지 팀장, 데스크, 국장 등을 거치면서 팩트체크, 교차 취재, 검증 등을 통해 엄정한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내 개인적

애리조나에서 만난 반가운 인연들. 왼쪽부터 필자, 엘리라 창가(알바니아 기자), 존 마이스너 교수, 후안 문델 교수.

으로도 초년병 때 멘토 선배가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받아와 체계적으로 분석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탁월했던 그 선배는 머릿 속에 색인이 들어 있어 따로 나를 포함한 후배들이 별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지금의 내 모습과 차이라면 차이겠다.

또 취재팀이 50개주 전체에 보낸 정보공개청구 수백개를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어, 전체 청구 내용을 대형 스프레드시트에 모아 팀 전체에서 꾸준히 재확인하는 것도 기억에 남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조기자들이 주요 재판에 대해 사건번호와 당사자, 재판 주요 내용과 기일 등을 구글 드라이브 등에 정리하는 것과 비슷했다.

지금도 미국 애리조나 하면 그랜드캐년보다는 취재 내용에 열심히 주석을 달던 그 때가 떠오른다. 차장급 중견기자로서 나는 그 때 만났던 예비 기자들만큼 치열하게 팩트를 의심하고 재차 확인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나. 며칠 전 디지털 팩트체크를 같이 담당하던 같은 팀 인턴에게 인사를 건네다가 문득 주석 달던 기억이 떠올라 머쓱해졌다.

조선일보 이현택 기자